

중소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경쟁력 'UP'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진해, 기업 및 지역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전북형 스마트공장이 대한민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최초의 지역 주도형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이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수는 28만3,568개로 이 가운데 소상공인(27만3,327개)을 제외하면 실질적 제조 중소기업은 약 1만개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전북자치도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싹틔움 지역과 촘촘히 이어져 있어 기업의 현장 혁신 정도에 따라 미래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혁신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자치도는 중소기업 분야의 혁신을 통해 세계적 중소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 대만 같은 중소기업 강지로 성장해 나간다는 밑그림이다.



지난해 6월 19일에 열린 전북형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 선정기업 협약식.

전북자치도는 '2024-2026 전북형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를 통해 300여개의 중소 제조 현장에 혁신을 가할 계획이다. 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장가능성과 지속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 주도 민관협업 사업으로, 사실상 전북자치도가 이 분야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총 70개 전북형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가운데 39개 기업이 프로젝트를 완료했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사업은 지난해 7월 시작해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다.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305억원의 민관 자금이 투입되며, 도와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 현장 활력 'UP'

70개 기업 중 39개 완료단계, 56% 진척률
생산 등 혁신생태계 구축 '축매제' 역할
도내 제조 현장, 맞춤형 혁신성장 지원

시군은 스마트공장 구축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현재 전북형 전담멘토들이 기업 임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현장을 탐방한 기업은 25개사이다. 이들 기업들은 현장리뉴얼 및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제조 현장의 간편자동화와 기업 자원 관리시스템, 제품개발 지원시스템 등을 새롭게 구축하며 기업 수준에 맞는 단계적 스마트 공장으로 변모 중이다.

현재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24년 사업은 올해 6월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올해 5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될 2025년 전북형 스마트공장 사업이 이어진다. 올해년도 사업은

오는 3월경 공고를 앞두고 있으며 모집기업은 총 71개사 규모다.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분별 표준화가 진행되는 기초 1단계의 JS1유형이 22곳 선발되며, 생산실적이 자동 집계되는 기초 2단계 JS2유형이 45곳 선정된다. 여기에 실시간 의사결정이 지원되는 중간 1·2단계 JS3유형이 4곳 배치되며 기업 수준에 맞는 기술이 지원된다. 기초단계 기업은 현재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이다.

현장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또렷하다. 지난해 9월 기초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정음 동지상화당 최방호 대표는 전북자치도와의 현장간담회

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에 대한 개념과 방향 설정에 대한 갈등을 해소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같은기간 진행된 원주 기쁨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오미래 대표는 "멘토들의 과제 발굴·개선으로 인한 기업 변화를 체감했고, 이를 고도화해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기초 1단계 사업을 완료한 김제 새롭산업 전기남 부사장은 전북자치도·도의회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폐골재하는 기업에 이 사업이 맞을 거고 고민했는데, 의외로 적절히 잘 맞아 놀랐다"고 언급했다.

동석한 뿌리산업 김호중 사무총장은 "기초 소부장기업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소부장 기업에게 전북형 스마트공장 쿠틀을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는 기업 눈높이에 맞춤형 프로그램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형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는 중기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삼성전자 중심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특징점을 벤치마킹해 우리지역 현실에 맞게 설계됐다.

여기에 민관 사업의 참가주체 구성 및 각각의 상생 역할도 프로젝트의 인착을 도왔다. 사업총괄기관인 전북자치도는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계획과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구축비(도비) 등의 지원에 나섰고, 14개 시군은 구축비(시군비) 지원 및 희망기업 발굴, 사업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주)삼성전자가 현장 제조혁신과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판로 개척을 돕고, 물류·공정 등 전문 기술분야도 지원한다. 또 도내 중소기업이 주축이 된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포럼이 스마트 공장 희망기업 추천

및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홍보효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도입기업과 현장에서 직접 호흡하는 제조혁신 기술지원단(전북형 전담멘토)은 현장 환경개선 및 제조공정 과제 발굴, 혁신 지원을 맡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다.

전북형 스마트공장의 핵심인 전담멘토는 삼성전자 출신의 제조혁신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대 8주간 기업에 상주하며 공정 진단부터 공정 최적화 및 제조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돕는다.

전북자치도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시도한 프로젝트의 현장목소리를 바탕으로한 성과 점검과 더불어 전북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앞둔 기업들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동시에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대표적 사례가 이 분야 특례 발굴이다.

전북자치도는 제조 현장 현실에 부합한 지역 주도의 스마트 제조혁신 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기업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도지사 인증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도지사 인증 절차나 국가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미래첨단산업국 오택림 국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제조혁신의 최고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6~8주이상 동고동락하며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일하기 편한 환경으로 탈바꿈시켜 준다"며, "많은 기업들이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2025년도 전북형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에 나서며, 혁신 성장의 길을 지속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1만호 기자

을사년 [乙巳年]

2025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日新月异 (일신월이) :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군산시의회 GUNSAN CITY COUNCIL

2025년도 군산시의회 운영계획안

회기 별	기간	회의 횟수	주요 내용	비고
제270회 임시회	1. 6.(월)~1. 7.(화)	2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제271회 임시회	1. 14.(화)~1. 17.(금)	4	• 부의안건 처리 ※ 시년인사회: 1월~2월 ※ 졸업식: 1월~2월	
제272회 임시회	2. 10.(월)~2. 21.(금)	12	• 부의안건 처리 •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73회 임시회	3. 18.(화)~3. 28.(금)	11	• 부의안건 처리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해빙기)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시) • 결산검사 위원 선임	
제274회 임시회	4. 8.(화)~4. 11.(금)	4	• 부의안건 처리	
제275회 제1차 정례회	6. 10.(화)~6. 24.(화)	15	• 부의안건 처리 • 2024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제276회 임시회	7. 8.(화)~7. 11.(금)	4	• 부의안건 처리 • 특별위원회 구성(예산결산, 윤리)	
제277회 임시회	8. 26.(화)~9. 5.(금)	11	• 부의안건 처리 •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시)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제278회 임시회	10. 14.(수)~10. 24.(금)	11	• 부의안건 처리 • '25년 업무실적 및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79회 제2차 정례회	11. 11.(화)~12. 19.(금)	39	• 부의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 • 2025년 결산추경예산(안) 심의 •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 총회의 10회(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회의일수 113일(정례회 54일, 임시회 59일)
* 본 계획은 의회 일정과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